

수능 영어
노베이스 1등급
공부법과 커리큘럼

by **평범한 라포**

[목차]

0. INTRO

- 이 전자책의 가치
- 노베이스, 당신도 1등급 받을 수 있다

1. 노베이스 영어 공부법의 본질

- 노베이스 영어 공부법의 본질, 2가지 원리
- 노베이스가 공부해도 인강 들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

2. 노베이스 영어 커리큘럼

- STEP1. 해석력, 영어를 한국어로 이해하기
- STEP2. 문제해결력, 영어만의 문제 해결하기
- STEP3. 실전연습, 내 실력만큼은 성적받기

3. 커리큘럼의 실천적 적용, 자신만의 커리큘럼 짜는 방법

- 상황에 따른 커리큘럼 예시 3가지
- 제가 다시 수능을 본다면, 이렇게 커리를 짜겠습니다.

4. 마지막으로, 1등급보다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

INTRO.

이 전자책의 가치

아무리 당신이 노베이스더라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.

제가 노베이스에서 수능 영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전부 하나 하나 알려드릴게요. 무슨 교재로 공부하고, 무슨 인강을 들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.

전 강촌에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영어 성적을 끌어올렸습니다. 3년간의 독학을 통해 상대평가 시절 1등급을 받았어요. 시행착오도 많았죠. 하지만 제가 겪은 고생을 여러분은 겪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

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

수험번호	성 명		생년월일	성 별	출신고교(반 또는 졸업 연도)		
구 분	한국사 영역	국어 영역	수학 영역	영어 영역	사회탐구 영역		제2외국어/한문 영역
			나형		생활과 윤리	윤리와 사상	아랍어1
표준점수		133	134	133	65	63	69
백분위		98	99	96	99	90	95
등급	1	1	1	1	1	2	2

제가 노베이스에서 1등급으로 끌어올렸던 방법과 커리큘럼을 통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. 이 전자책을 통해 노베이스가 1등급이 되기 위한 공부법과 그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제시하겠습니다.

게다가 제가 공부를 하며 비효율적이었던 과정은 뺐고, 현시점 유행하는 교재와 인강들을 검토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겪은 시행착오는 줄이며, 저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

따라서 이 책이 있다면, '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해요?', '인강 추천해주세요, 문제집 뭐 풀어야되나요?' 등의 질문을 하기 위한 고민과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이런 고민들은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힙니다. 한 번 정보를 찾을 때마다 1~2시간을 쓴다고 하면 최저시급으로만 쳐도 9,000원~18,000원이나 되는 손해입니다. 게다가 수험생의 시간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귀중하니, 그 손해는 더욱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.

걱정하지 마세요. 이 책은 그런 시간낭비를 줄여줍니다.

**밥 한 끼의 가격으로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끼는
건 어떨까요?**

영어 1등급, 당신도 할 수 있다!

영어 공부는 누군가는 성적 올리기 쉽다 말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어려웠던 과목입니다.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영어를 접할 기회도 없었고 언어감각은 고자여서... 영어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. 저는 중학교 때 알파벳도 똑바로 쓰지 못했던 경험도 있죠.

문법을 공부하지도 않았어서 분사는 또 뭐고, 보어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서 머리를 쥐어뜯곤 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저도 상대평가 시절에서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어떻게 가능했을까요?

바로 영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커리를 짜서 양을 채웠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책을 읽을 노베이스분들도 영어 공부법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짜여진 커리큘럼을 통해 공부하면 누구나 1등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

이 책의 커리큘럼은 영어 공부를 완전히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커리큘럼입니다. 기본적인 문법도 모르는 사람이 수능 날에는 결국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제시하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보세요.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

게다가 절대평가인 지금은 80점만 받아도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, EBS연계도 간접연계로 바뀌어서 더 영어공부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

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영어를 접할 기회도 없었으며 또 머리도 안 좋아요. 아이큐도 두 자리고(ㄷㄷ). 근데 이런 저도 1등급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

까짓것 영어 1등급? 해치우러 가봅시다.

1. 노베이스 영어 공부법의 본질

영어 공부의 본질적 원리, 2가지

영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수능 영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, 그 본질을 알아야 그에 맞게 공부할 수 있겠죠? 항상 공부를 할 때는 평가원이 평가하는 각 과목의 본질적인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.

그래야 공부할 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여, 낭비는 최소화하고,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.

예를 들어 헬스를 할 때에도 운동할 부분에 집중해서 운동해야 합니다. 주변 근육들로 집중이 분산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.

공부를 할 때 지금 내가 하는 노력이 성적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계속 고민하셔야 해요.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다면 꼭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.

이때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? 점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

영어 과목의 본질입니다!

저는 영어 공부도 본질은 2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(~~맨날~~ 두 가지래...)

첫 번째는 '해석력'(영어를 한국어로 해석가능한지)이고,
두 번째는 '문제해결력'(영어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)입니다.

이 두가지 본질에 따라 능력을 키우면 알파벳도 모르는 영어 노베이스더라도 영어 1등급 씹가능입니다. 한국말로 해석을 할 수 있고, 영어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영어 공부는 끝이라고 볼 수 있죠.

첫번째, 해석력

해석력은 말 그대로입니다. '영어 문장을 한국말로 바꿔 해석할 수 있느냐?'라는 거죠.

노베이스는 이 능력부터 기르셔야 합니다. 문제 많이 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문제 많이 풀어도 성적 안 오릅니다. 효율이 안 좋죠. 해석 안되는 문장들이 계속 반복되어 쌓이니까요.

그럼 해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?

영어 문장의 구성요소인 '어휘'를 알아야 각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, 그 어휘들이 결합되어 해석되는 '문법&구문'을 알아야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즉, 어휘 엄청 외우고 영어 문장들을 문법&구문에 맞게 계속 해석하면 됩니다.

구체적인 내용은 커리큘럼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..!

두 번째, 문제해결력

해석력이 어느정도 쌓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어야하죠.

이때 영어 문제는 유형이 있습니다. 별거 없는데 크게 2가지라고 봅니다.

1. 쉬운 문제(목적, 주제 등)

2. 어려운 문제(빈칸,순서,삽입,문법 등)

쉬운 문제는 기출을 풀든, ebs를 풀든 별 거 없습니다. 국어처럼 이해하며 읽으며 주제를 파악하면 돼요. 한국어로 해석만 되면, 그냥 풀립니다.

결국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.

어려운 문제 유형은 그 문제를 푸는 기술과 훈련이 필요한 유형입니다.

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반복 연습을 통해 체화해줘야합니다.

구체적인 방법은 이 역시 커리큘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영어 노베이스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>

그런데, 노베이스 친구들이 성적을 안 오르는 이유도 봐야합니다. 단순히 이 전자책을 읽었다해도, 혹은 뛰어난 칼럼 등을 보았다고 해도 성적이 안오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.

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름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안 올랐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, 그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. 따라서 본인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성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보아야 합니다.

도대체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왜 안 오를까요?

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결국 앞서 말한 영어 공부의 본질에 맞지 않게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. 즉, 해석력과 문제해결력이라는 2가지 능력을 기르지 못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이죠. 몇 가지 유형을 함께 보며 스스로의 공부 상황을 성찰해 봅시다.

- 문제만 많이 푸는 경우

문제만 풀고, 각 문장을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.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고, 성취감도 느낄지 모르지만 성적은 안

오릅니다.

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'해석력'이 전혀 채워지지 않거든요. 해석력은 문제의 모든 문장을 본인이 직접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향상됩니다.

- 문법, 구문에 대한 기초가 없는 경우

마찬가지로 문법적 기초가 없는 경우라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. 그냥 감에 따라 해석해도 쉬운 문제는 어느 정도 맞힐 수 있죠.

하지만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밑천이 드러나게 됩니다. 불확실하게 감에 의존하는 애매한 공부만 반복됩니다. 이 역시 해석력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 어렵습니다.

- 문제가 왜 맞았는지 틀렸는지 말할 수 없는 경우

이제 이건 어떤 능력이 안 길러졌는지 알겠죠? 네, 문제해결력이 전혀 길러지지 않았습니다. 문제를 맞힌다면 왜 이게 답이고 왜 저건 답이 되지 않는지 고민하고 말할 수 있어야합니다. 그래야

성적이 감에 의존하지 않으며,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. 정답의 근거를 꼭 찾으십시오. 어려운 문제 유형에 대한 인강이나 책을 통해 공부해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방법을 배워야합니다.

- 단어가 부족한 경우

영어 공부의 '근본'은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. 단어 없이는 해석도 없으며, 단어 없이는 문제해결도 없습니다. 문제를 푸는데 매 줄마다 모르는 단어로 가득하다고 생각해보세요. 지문 이해를 할 수도 없고, 문제 푸는 것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.

<인강 들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>

이건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죠. 인강을 들어도 성적이 전혀 안 오르는 경우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영어 공부의 2가지 본질을 못 채우는 공부를 했기 때문이겠죠. 단어를 안 외운다던지, 구문&문법적 지식이 없다던지 말이죠.

하지만 상당 수의 경우는 인강 진도 나가는 것에 급급하여 본인의 체화 과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.

인강을 통해 배웠다면 본인이 배운 걸 직접 익혀야하는 과정이

필요합니다. 진도 빨리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본인이 직접 강사님처럼 할 수 있어야하죠.

인강 진도를 빠르게 빼기 위해서 본인의 복습 과정을 간과하지 마세요.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공부가 됩니다.

네. 이렇게 공부 효율을 떨어뜨려서 성적이 안 오르는 유형들을 보았는데요,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노베이스 영어 커리큘럼을 제시해 보겠습니다.